

열심히 일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주민 편익 증진 기여

6명에게 인센티브 부여

해운대구는 10월 20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 직원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선발된 직원들은 인사상 인센티브를 받는다.

최우수는 윤예선 주무관(늘푸른과)으로 전국 최초 '해운대 장산 구립공원 지정'으로 장산의 생태·경관·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백년대계 통합관리가 가능해진 점을 높게 평가했다.

우수는 최성희 행정사무장(반송2동)의 주택가 틈새에 수십년간 방치된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태양열 센서 LED조명을 부착한 '벌티가림막' 설치 사례가 뽑혔다. 허진오 주무관(건설과)은 파라다이스호텔, 엘시티와 입부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도로확장 편입 토지 무상 사용, 사업비 지원, 도로 확장 공사로 예산 절감, 해변로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 우수로 뽑혔다.

장려로 선정된 이수민 주무관(관광시설관리사업소)은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의 사위발의장 등 편



의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해 실시간 매출관리시스템 운영으로 9천200여만 원의 구 세입증대에 기여했다. 박정현 주무관(복지정책과)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네이버사와 협약을 체결해 AI를 활용, 돌봄대상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콜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김부혜 건설정책팀장(건설과)은 민원인과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도로로 필요 없게 된 토지를 환매추진해 가용재원 1천9백이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으며 정확한 절차 이행과 안내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 장려로 선정했다.

문의 기획조정실 ☎051.749.6172